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광양시, '100원 택시'

19개 마을로 확대 운행

광양읍 삼성, 옥룡면 율곡·남정, 진월면 사동·가길·중도 등 추가

광양시는 2015년부터 교통취약 마을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중인 100원 택시를 올해 6개 마을을 추가해 19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이용권과 100원을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운행 기준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

강장까지 거리가 1km에서 700m로 완화됨에 따라 6개 마을이 추가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마을로는 광양읍 삼성, 옥룡면 율곡·남정, 진월면은 사동·가길·중도 등이다.

시는 이번 1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254가구, 490여 명이 추가로 이용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희주 교통행정팀장은 "100원 택시가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

공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100원 택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부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된 100원 택시는 지난 해 5월 100원 택시 민족도 조사결과 이용자 97%가 만족할 만큼 큰 호

평을 받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 운주사 가치 증대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구충곤 군수, 대표축제 격상·예산 증액 요구에 신중



구충곤 화순군수는 "운주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는 23일 도임연에서 열린 군민과의 행복 공감대회에서 "운주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선수들이 가장 기쁘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며 "화순의 관광산업에서 운주사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면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는 운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군수는 운주문화축제를 군 대표축제로 격상하거나 예산을 2억원~3억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면민의 건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운주문화축제를 군 대표 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은지, 면에서 주관하면서 관광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충곤 군수는 "앞으로 운주사 관계자와 협력해 문화체육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운주사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 군수는 "현재 음 외곽지역인 능주 식품단지와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능주·춘양·한천·도곡면과, 동면·남면·동복·북면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면서 "2020년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가시화 될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은 군비 지원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업지원부等方面에 지원을 건의하겠다"며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수 취임 이후 군민화합과 군정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군정을 추진 했다는 구 군수는 "앞으로 군민과 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는 "공직자는 7만 군민의 편으로서 '명품화순'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신념을 갖고 군민과 가슴을 열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그린순천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위한 지표 만든다

다양한 도시 주체 참여하여 삶의 질 높이는 지표로 개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표개발위원회(제일대, 청암대, 청암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등 분과위원회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해 실행계획을 함께 결정하고 최근 '그린순천21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회의는 지역 대학 교수

화·관광/교육/자치/농업분과로 구분된 7개 분과위원회는 2015년 UN에서 제택한 SDGs 17개 목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분야별 지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표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3개 위원회를 7개분과위원회로 전환하고, 분야별 연구실적을 월 1회 공유하여, 토론회, 포럼,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는 1990년 출범 이후 지난 20여 년간 3번에(1997년 4개 분야 21개 실천지표 2007년 3개 분야 12개 실천지표, 2013년 7개 분야 21개 정책목표) 걸쳐 순천시에 지속가능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자체상' 수상

서울 이음센터 5층 아트홀서 성과공유세미나에서 시상

순천시가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23일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성과공유세미나'에서 자체 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자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7 예산 등 전사(1004)의 약속 치유 라는 주제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디투문화공동체 이강숙 대표가 작가상도

함께 수상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예술 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를 비롯한 전국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년 간 진행했던 사업결과의 발표를 통해

지자체별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순천시는 이강숙 대표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년 동안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마곡동 일원의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효자마을에 관련한 역사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작가팀, 지역민, 예산증 배신하고 및 순천대학교 학생까지 폭넓은 계층들이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2년 만 누적매출 50억 돌파

50여 품목 할인·시식회·시온품 증정 등 고객 사은 행사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이 누적매출 5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장한 이래 약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로컬푸드 분야 매출 50억 원은 꽤될 만한 숫자다. 직매장인 빛가람점의주요 매출원이 단위가격이 비교적 낮은 농산물 위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0여명, 그간 총 27만 명이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 증대'는 누적 매출 50억

원 달성에 따른 또 하나의 성과다. 지난 2년 간 나주로컬푸드에 농산물을 출하한 지역 농가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쳤을 때보다 약 10억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절감한 비용도 약 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경제 구축이라는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23일,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은 누적매출 50억 원 돌파 기념 및 시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주로컬푸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할인판매 행사를 운영한다.

배, 고구마, 딸기, 허리뽕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총 50여 품목에 대해 최대 6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한 증정품 행사는 진행된다. 행사 첫날 1만 원 이상 구매 소비자에게 떡국떡이 제공되며, 이를날인 27일과 행사 막일인 28일은 구매금액 2만 원 이상인 경우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모든 증정품 행사는 한정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에 다양한 시식 행사를 통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